

사도행전에 나타난 EKKLHSIA(교회)와 선교적 사명

장석조(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I. EKKLHSIA(교회)와 선교는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인가?

조국 교회의 성장 증지는 해외 선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다. 본 소논문은 사도행전에서 '교회'(evklhsi,a)와 선교와 관계를 관찰하면서 교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다.

먼저 우리는 '교회'(evklhsi,a)가 사도행전의 중심주제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 등 교회에 관한 연구가 사도행전의 구조에 철저히 기초하지 못했다. 사도행전은 먼저 '말씀'(lo,goj)의 확산을 중심 주제로 제시하고, 그것을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한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도행전은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교적 사명을 실행해야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논증하려 한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교적 사명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며 내부적 부패와 외부적 박해를 극복하며 선교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전개에 따라 논증하려 한다. 교회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pi,stij)과 사랑의 구제를 공유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구심점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이란 원심력을 일으키고 있다.

본 소논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정체성 확립과 선교적 사명에 모범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모습을 연구한다. 그 결과를 성장이 중지되고 오히려 쇠퇴하는 한국교회에 적용하여 조국의 개혁교회가 다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교적 사명을 불태우는데 자그마한 힘이 되길 바란다.

II. 사도행전의 주제와 저자의 기록 목적: '교회'(evklhsi,a) 언급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의 기록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F. C. Bauer),¹⁾ 로마의 유대 기독교에게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 사역의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M. Schneckenburger),²⁾ 교

1) F. C. Bauer, "Die Christuspartei in der korinthischen Gemeinde, der Gegensatz des petrinischen und paulinischen Christentums in der ältesten Kirche, der Apostel Petrus in Rom," TZTh 5(1831, 4.Heft), 61-206.

2) A. J. Mattill, Jr., "The Purpose of Acts: Schneckenburger Reconsidered," in W. W. Gasque · Ralph P.

육받은 로마 청중을 복음적 믿음으로 회심시키려는 전도의 목적(J.C.O'Neil),³⁾ 이방종교에 대한 기독교적 변증(14.15-18)나 유대교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기독교의 변증(7.2-53; 21.39-28.28) 등 선교적 변증의 목적(F. F. Bruce),⁴⁾ 예수의 복음 사역과 사도들의 복음 사역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보이려는 목적(I. H. Marshall) 등 다양하다.⁵⁾

이상의 다양한 견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본문의 중심 주제인 말씀의 확산에 근거한 I. H. Marshall의 견해다. C. K. Barrett도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를 말씀의 확산으로 보면서 이방인을 선교하려는 목적을 제시한다.⁶⁾ 특히 박형대는 사도행전의 구조를 통해 말씀의 확산을 중심 주제로 삼고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제시한다.⁷⁾

지금까지 소개한 견해들을 종합하면, 사도행전 주해의 중요한 세 가지 관점, 즉 저자의 의도, 본문에 나타난 주제, 그리고 본문의 구조 등을 고려하려는 결과다. 하지만 본문의 주제와 구조가 보다 철저하게 분석되지 않는다면 저자의 의도를 명확히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

1.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lo,goj)의 확산

먼저 '말씀'(lo,goj)의 확산을 주제로 제시하는 견해들이 요약절에 기초한 구조를 제시한다.⁸⁾ 이에 따르면, 사도행전은 세 개의 요약절들에 의해 T1(행 1:1-6:7), T2(행 6:8-12:24), T3(행 12:25-19:20), T4(행 19:21-28:31) 등 4개의 본문으로 구별된다.

<표1>

T1(행 1:1-6:7)	요약절 6:7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 명사: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의 수, 예루살렘, 무리, 제사장들, 믿음
---------------	--

Martin (eds.), *Apostolic History and the Gospel. Biblical and Historical Essays. Presented to F. F. Bruce*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1970), 108.

3) J. C. O'Neill, *The Theology of Acts in its historical setting*(London : S. P. C. K., 1970), 176.

4) F. F. Bruce, 『사도행전』, 김장복 역(서울 : 부흥과개혁사, 2017), 38-42.

5) I. H. Marshall, *The Acts of the Apostles* (Sheffield, England: JSOT Press, 1992), 29; I. H. Marshall, *The Acts of the Apost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0), 26. 그 외 여러 견해를 소개한다. 윤철원, (성서 읽기의 새로운 흐름)사도행전의 내러티브 해석(서울: 바울, 2004), 138.

6) C. K. Barrett,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s. 1-2* (ICC; Edinburgh: T. & T. Clark, 1994), 49; 조광호, "이방인 선교의 관점에서 본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 *신약논단*, 20(1), 132, 135.

7) 박형대, "사도행전에 소개된 예루살렘교회의 변화에 대한 소고," 『신학지남』 77/2 (2011), 114. 그는 사도행전의 서론을 1장 1-3절로 한정되고 서론에 나타난 주제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로 요약되고 사도행전의 결론을 마무리하는 28장 31절의 '하나님의 나라'와 바르게 연결한다.

8) C. H. Turner, ed. by Hastings, *A Dictionary of the Bible v.1* (New York: Scribner's Sons, 1900), 421; Norman Perrin,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Proclamation and Parenthesis, Myth and Histor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c1974), 205-206; David G.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 Co ; Nottingham, England: Apollos, 2009), 34, 36, 42.

	동사: 왕성하다, 많이지다, 복종하다
T2(행 6:8-12:24)	요약절 12:24 하나님의 말씀 명사: 하나님의 말씀 동사: 왕성하다, 많이지다
T3(행 12:25-19:20)	요약절 19:20 주의 말씀 명사: 힘, 주의 말씀 동사: 왕성하다, 세력얻다
T4(행 19:21-28:31)	요약절 28:30-31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명사: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담대함 동사: 전파하다, 가르치다

마지막 넷째 본문 T4(행 19:21-28:31)의 요약절은 ‘말씀’(lo,goj) 단어가 없지만, 그 말씀의 내용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h` basilei,a tou/ qeou/)와 ‘주 예수 그리스도’(ku,riouj vlhsou/j Cristo,j)를 주제어로 제시한다. 사도행전의 요약절들에 나타난 ‘말씀’(lo,goj) 주제어는 마지막 단원(행 19:21-28:31)의 요약절에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h` basilei,a tou/ qeou/)와 ‘주 예수 그리스도’(ku,riouj vlhsou/j Cristo,j)으로 구체화한다.

사도행전의 서문(행 1:1-3)은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그 주제를 전치사 peri,로 도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ta. peri. th/j basilei,aj tou/ qeou/)로 명시하며 시작한다(행 1:3).⁹⁾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통일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E. J. Schnabel도¹⁰⁾ 복음적 말씀에 관한 마지막 설명과 그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응을 묘사하는 마지막 단락 사도행전 28장에 기초하여 본문의 주제와 저자의 의도를 다루고 있다. 박형대¹¹⁾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의 서론과 결론에서 주제로 명시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과연 요약절에 나타난 ‘말씀’(lo,goj)의 확산을 사도행전의 주제로 반복하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은 본문의 주제와 구조를 보다 철저하게 분석할 때 가능하다. 사도행전의 주제로 명시된 ‘하나님의 나라’(h` basilei,a tou/ qeou/)는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사도행전에 겨우 8회 밖에 나타나지 않지만(행 1:3,6; 8:12; 14:22; 19:8; 20:25; 28:23, 31), 주제를 제시하는 서두(행 1:3,6)와 주제를 재확인시키는 결미(행 28:23, 31)에 각각 2회 나타나는 것은 전체 본문의 서두와 말미의 수미쌍관구조(inclusio)로 사도행전의 주제를 제시하려는 누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또한 이 기준의 중요성은 사도행전의 주제어로서 사도행전의 4부에 모두에 나타난다는 점에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제1부(1:1-6:7)의 주제는 예루살렘에서의 말씀의 성장이라 할 수 있지만, 저자는 그 말씀을 명확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로 제시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9) `H basilei,a tou/ qeou/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양용의,『하나님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4), 15-17, 54; 양용의,『마태복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4), 145-46; 김세윤,『예수와 바울』, (서울: 참말, 1993), 42-46.

10) Eckhard J. Schnabel, 『강해로 푸는 사도행전』(디모데, 2018), 41-42.

11) 박형대, “예루살렘교회의 변화,” 114.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누가는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된 사실들(눅 1:1-4)을 주제로 제시한다.¹²⁾ 누가복음의 서문(눅 1:1-4)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합하는 주제를 peri,(빼리, ~에 대하여)전치사구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행위들/사건들'로 명시한다. "우리 중에 성취된 사실들에 관하여"(사역, peri. tw/n pephlroforhme,nwn evn h'mi/n pragma,twn, 눅 1:1)는 주제를 명시하는 전치사구인데, 여기 사용된 동사(peplhroforhme,nwn)는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 언급을 피한 완곡 표현, 즉 하나님이 성취하신 행위들에 관한 간접 표현이다.¹³⁾ 이 신적 수동태는 누가복음에 고루 나타난다(눅 1:20; 4:21; 9:31; 24:44 등). 서문의 신적 수동태 문장은 첫 기사(1:5-25)를 마무리하는 누가복음 1:25에서 능동태문장(pepoi,hken ku,rioj; '주께서 행하셨다')으로 환언(paraphrase)된다.

처음으로 제시된 약속의 성취 주제는 회고적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서문에서¹⁴⁾ 다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들"(행 1:1-3)로 요약되고, 이 모든 주 예수의 기독교적 사역은 바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로 제시된다.¹⁵⁾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탄생 예고에서다. 누가복음의 서막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된 사건으로 제시되며 시작한다(눅 1.32-33; 삼하 7.12-16).

이와 같이 저자는 먼저 기독교가 구약과 유대교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변증을 누가복음의 첫 단락에서 시작한 후 사도행전에서도 유대교를 향한 선교적 변증을 계속하다가 마친다(7.2-53; 21.39-28.28). 그리고 유대교를 향한 선교적 변증과 이방종교에 대한 기독교적 변증(14.15-18)을 밀접하게 연결하며 선교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¹⁶⁾

저자의 의도를 보다 철저히 다루는 E. J. Schnabel은¹⁷⁾ 이 복음적 말씀을 듣는 대상이 교회 내부의 논쟁자들이나 다신교를 믿는 헬라 청중보다도 유대인 청중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 말씀에 관한 마지막 설명과 그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응을 묘사하는 마지막 단락 사도행전 28장에 기초하여 하며 데오빌로와 같이 주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12) D. Bock,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과 성취," in I. H. Marshall, Witness to the Gospel: the theology of acts, 『사도행전신학』, 류근상 역, (경기도: 크리스찬 출판사, 2010), 63-67.

13) 김광모, "누가복음서 서문의 구조적 의미론 분석", 성침논단 제8집(2011), 49-50; Joachim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The Proclamation of Jesus, trans. John Bowde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1), 8-14, 63-7, 102.

14) 누가-행전의 통일성에 대한 찬반토론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선 M. F. Bird, "The Unity of Luke-Acts in Recent Discussion," JSNT 29/4 (2007), 425-48을 보라. I. H. Marshall, 『복음의 증거 -사도행전 신학』 (Witness to the Gospel-the Theology of Acts), 류근상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4), 19-20; F. F. Bruce, The Acts of the Apostl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98; H. J.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London: S. P. C. K., 1958), 8ff.

15) 누가-행전의 통일성에 대한 찬반토론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선 M. F. Bird, "The Unity of Luke-Acts in Recent Discussion", in JSNT 29.4 (London: SAGE, 2007), 425-448을 보라.

16) Bruce, 『사도행전』, 38-42.

17) Eckhard J. Schnabel, 『강해로 푸는 사도행전』(디모데, 2018), 41-42.

참여된 것이라는 교회 정체성의 확신을 주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하려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목적을 바르게 제시한다.

2. 저자의 기록 목적: '교회'(evklh̄si,a)의 정체성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말씀과 그 확산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주제를 반복하는 저자의 의도에서 그 복음적 말씀의 대상이 다양하나 유대 청중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E. J. Schnabel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복음적 말씀의 전파 대상으로서 유대인 청중에게 더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정체성 확립과 선교적 사명을 고취시키고자 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그 복음적 말씀을 확산하는 주체가 교회임을 반복하며 교회의 정체성 확립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면서도 사도행전에서 선교적 주체로서 교회의 중요성이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교회'(evklh̄si,a)는 사도행전에 23회 언급되는데, 다음 <표2>와 같이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단어는 T1(행 1:1-6:7)에 1회 언급되고(5.11), T2(행 6:8-12:24)에 8회 언급되고(7.38; 8.1, 3; 9.31; 11.22, 26; 12.1, 5), T3(행 12:25-19:20)에 9회(13.1; 14.23, 27; 15.3, 4, 22, 41; 16.5; 18.22), T4(행 19:21-28:31)에서는 5회(19.32, 39, 40; 20.17, 28) 언급된다.

<표2>

Text1 행 1:1-6:7	요약절 6:7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1:3, 6)와 주 예수 그리스도(1:6, 21, 24, 2:34, 36) 교회(5.11)
Text2 행 6:8-12:24	요약절 12:24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8:12)와 주 예수 그리스도(7:59, 60; 8:16, 25; 9:1 등) 교회(7.38; 8.1, 3; 9.31; 11.22, 26; 12.1, 5)
Text3 행 12:25-19:20	요약절 19:20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14:22; 19:8)와 주 예수 그리스도(15:11; 16:31; 19:17 등) 교회(13.1; 14.23, 27; 15.3, 4, 22, 41; 16.5; 18.22)
Text4 행 19:21-28:31	요약절 28:31의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20:25; 28:23, 31)와 주 예수 그리스도(20:21, 24, 35; 28:31 등) 교회(19.32, 39, 40; 20.17, 28)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저자가 evklh̄si,a를 주체어로 명시하는 두 개의 작은 요약절들(9.31; 16.5)에서 언급한다는 점이다. 소논문의 제약으로 인해 23회 언급된 구절들을 다 관찰할 수 없기에 교회를 언급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중심으로 그 문맥적 의미를 살펴 보려 한다.

먼저 '교회'(evklh̄si,a)는 사도행전의 첫째 단원 T1(1.1-6.7)에 단 1회 언급된다(5.11). 더

육이 큰 요약절인 6장 7절에 언급되지 않아서 중심주제로 제시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주제어 '교회'가 명시된 5장 11절은 예루살렘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T1.2(2:42-6:7)에 속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회의 모범적 모습은 본문을 구성하는 세 단락, T1.2.1(2:42-4:31), T1.2.2(4:32-5:11), T1.2.3(5:12-6:7) 모두에서 반복되어 강조된다. 5장 11절의 중요성은 둘째 단락 T1.2.2(4:32-5:11)을 마무리하는 작은 요약절이라는데 있다.

이 요약절에서 저자는 교회의 정체성을 주를 경외함(fo,boj)으로 묘사한다.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fo,boj)는 것은 T1.2(2:42-6:7)을 시작하는 첫 단락 T1.2.1(2:42-4:31)에서 주를 경외하는 교회의 네 가지 모범적 표지에 대한 반응 두려움(2:43, fo,boj)을 회고시킨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주를 경외하는 것으로서 둘째 단락의 작은 요약절 9.31에서 반복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말씀을 확산하는 주체이기 이전에 말씀의 내용인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복음적 공동체다. 저자는 이와 같은 교회의 정체성으로 T1(1.1-6.7)과 T2(6.8-12.24)의 결속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래서 첫 단락 T1.2.1(2:42-4:31)은 교회를 기독교적 복음에 근거한 "모든 믿는 사람들"(2:44)로 표현하고, 둘째 단락 T1.2.2(4:32-5:11)도 "믿은 무리"(4:32)로 표현한다. 이 '믿음'(pi,stij)의 주제는 T1(1.1-6.7)의 요약절 6.7이나 T3.1(12.25-16.5)의 요약절 16.5에서도 일관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근본적인 주제로 보이는 주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본질적 요소일 것이다. 바로 그 대답이 T1(1.1-6.7)의 첫 단락 T1.1(1.1-2:41)에 제시된다.¹⁸⁾ 본 단락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받은 신자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 선포하는 모습을 보인다(2:36; 눅 9.20-22).¹⁹⁾ 이정도 되면 T1.1(1.1-2:41)을 마무리하는 요약절에 교회(evkkhlsi,a)란 표현을 사용한만한데, 저자는 그 표현을 절제하고 대신 요약절 2.41에서 교회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T1(1.1-6.7)의 전반부에서 주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주장하고, 후반부에서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 성장하는 곳에 교회의 성장이 있다고 요약하며 마무리한다. 다시 말하면, 작은 요약절들(2.41; 9.31; 16.5)의 주제는 모두 교회라 할 수 있지만, 저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큰 요약절(6.7; 12.24; 19.20)에서와 같이 교회의 근거가 되는 복음의 말씀에 있다. 그것은 T1(1.1-6.7)의 전반부 T1.1(1.1-2:41)의 작은 요약절 2.41에 제시된 주제어 "그 말씀"이 큰 요약절들(6.7; 12.24; 19.20)의 주제어를 준비하고 예고하는데서 확인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 말씀, 주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요약절 2.41에서 단순히 그 말씀이라 요약했을 것이다. T1(1.1-6.7)의 전반부 T1.1(1.1-2:41)은 '말씀'(lo,goj)으로 시작하고(1.1) 마치는(2.41) 구조를 가지고 있다. T1.1.1(1:1-26)에 1회(1.1) 언급된 '말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며(1.1),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18) Giles, "Church," 194.

19) 윤철원, 『내러티브 해석』, 138-39.

것들로 요약된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으로 요약되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요약된다. 말씀과 그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와 주 기독론은 사도들이 선포할 복음의 핵심으로서(1.3, 5, 8; 눅 24.19)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어로 사용된다. T1.1.1(1:1-26)의 전반부는 주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의 사명으로 시작하여(1.1-11)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마친다(1.12-26). 후반부 T1.1.2(2:1-41)는 교회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2.1-13) 성령 강림의 의미와 그 내용인 주 기독론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마친다(2.14-41). 다시 말하면, 교회는 종말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한(2.17 율2.28) 성령의 공동체요, 그 성령으로 주 기독론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한다.²⁰⁾

특히 “그 말씀”이 3회 언급된(2.22, 40, 41) 단락 2.22-41은 그 말씀의 내용인 주 기독론의 복음을 요약하고, “그 말씀”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이 기독론적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권고하면서 마친다.²¹⁾ 저자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제시하고, 그 회복의 방법으로 기독론적 복음의 선포, 즉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행하신 구속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려 한다. 이것은 베드로의 질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기독론적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큰 일들로서 구속사역의 필수요소들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행하셨고(2.22),²²⁾ 고난의 죽음에 내어주셨고(2.23),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2.24-32),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2.33-35).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나사렛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려 한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요약하고,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전개에 나타난 수많은 복음 설교들을 이해하는 해석의 열쇠가 된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 원심력을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복음적 말씀에 기초하여 정체성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선불리 선교적 교회로 나서지 않고 먼저 복음적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힘쓴다. 이제 교회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정의되고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pi,stij)의 사람들로 표현된다(2.44; 4.32; 6.7; 16.5).²³⁾

III. 교회의 선교적 사명

사도행전의 저자는 교회가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실행할 때 ‘성령’(pneu/ma)과 ‘증인’(ma,rtuj)의 역할이 중요하

20) Giles, "Church," 194.

21) Craig S. Keener,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V.1. Grand Rapids, M. I. : Baker Academic, 2012), 970.

22) J. A. Fitzmyer, 『사도행전주해』, 박미영 역, (경북: 분도출판사, 2015), 262.

23)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213.

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내러티브의 전개를 통해서 살펴보려 한다.

1. 사도행전 1.1-6.7에 나타난 '성령'(pneu/ma)과 '증인'(ma,rtuj)

D. Bock은 사도행전에서 '성령'(pneu/ma)을 강조하며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큰 일과 그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와 주 기독교론의 복음을 증거할 주체로 바르게 이해한다.²⁴⁾ 사도행전 1:1-26는 주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의 사명으로 시작하여(1.1-11)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마친다(1.12-26). 특히 1장 4-8절은 주 예수를 목격하고 그와 함께 사역한 제자들이 선교적 증인들이 되는 사명을 위해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할 것과 지리적 확산을 강조한다.²⁵⁾ 2:1-41는 교회가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2.1-13) 성령 강림의 의미와 그 내용인 주 기독교론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마친다(2.14-41).

Peterson은²⁶⁾ 사도들이 받은 선교적 증인들의 사명이 사도행전에서 반복, 강조되는 것을 발견한다(열두 사도들 2.32; 3.15; 5.32; 10.39, 41; 13.31; 바울 9.1-16; 22.6-21; 26.12-18). 교회는 주 예수의 목격자인 사도들의 복음(눅 1.2)을 믿고 회심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받았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evklhsi,a)의 정체성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특히 구제(diakoni,a)로 확립된다(2.42; 4.32; 5.12; 6.1, 2, 4; 11.26, 29; 12.25; 19.22; 20.24; 21.19). T1.2(2:42-6:7)의 첫 두 단락, T1.2.1(2:42-4:31)과 T1.2.2(4:32-5:11)은 믿음의 특징을 가진 교회의 모습만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구제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도 반복하며 강조한다. T1.2.2(4:32-5:11)에서 구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순수한 구제의 긍정적인 모습과 불순한 구제의 부정적인 모습을 대조한다. 저자는 교회의 대조적 모습을 통해 교회의 모범과 순수성이 구제의 부정적 문제로 인해 부패되는 것을 처방하기 위해 불순한 재산 공유 생활이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마친다(5:1-11). 교회는 내부 구제문제에서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특징을 띤다.²⁷⁾

'교회'(evklhsi,a)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지만, 여전히 내적 부패와 외적 박해를 겪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교회의 선교적 주체성을 '증인'(ma,rtuj)으로 표현하며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Peterson은²⁸⁾ 사도들이 받은 선교적 증인들의 사명이 사도행전에서 반복, 강조되는 것을 발견한다(열두 사도들 2.32;

24) Bock, "예언과 성취," 67-69.

25)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80-81; 윤철원, 『내러티브 해석』, 138-41.

26)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80-83.

27) K. N. Giles, "Church," in Dictionary of the later New Testament & its developments, (edited) Ralph P. Martin, Peter H. Davids(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7), 194.

28)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80-83.

3.15; 5.32; 10.39, 41; 13.31; 바울 9.1-16; 22.6-21; 26.12-18). 그는 거짓 증인들(6.13; 7.58)과 대조하며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선교적 증인이 된 스테반(22.20)과 무명의 신자들(8.4; 11.19-21)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한다. 교회는 주 예수의 목격자인 사도들의 복음(눅 1.2)을 믿고 회심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받았다.

Bolt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선교적 주체성이 '증인'(ma,rtuj)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증언하다' 어근(-ma,rt-)으로 표현함(2.40; 8.25; 10.42, 43; 13.22; 14.3; 15.8 18.5; 20.21, 23, 24; 23.11; 28.23)을 발견한다.²⁹⁾ 사도행전의 첫 단원(1.1-6.7)의 전반부 T1.1(1.1-2:41)은 '말씀'(lo,goj)으로 시작하고(1.1) 마치는(2.41)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바로 증인의 선교적 사명은 그 말씀의 내용인 주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1.8) 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1.22) 준비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 예수를 목격한 증인으로 나서고(2.32), 모든 민족의 구원(2:21, 39)을 반영하며 더 많은 말씀들로 확실하게 증언한다(2.40).

사도행전의 첫 단원(1.1-6.7)의 후반부 T1.2(2:42-6:7)에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 예수를 목격한 증인으로 등장한다(3.15; 4.33; 5.32). 이 단락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적 교회의 선교적 사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주 기독교의 복음(2.47; 3.22; 4.29, 33; 5.9 등)에 기초한 믿음과 구제를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교회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³⁰⁾ Bolt는 선교적 증언에서 구약에 근거하여 고난, 죽음, 부활의 기독교와 죄 사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¹⁾

2. 사도행전 6.8-12.24에 나타난 '성령'(pneu/ma)과 '증인'(ma,rtuj)

사도행전의 둘째 단원(6.8-12.24)의 전반부 6.8-9.31에서 특히 요약절 9.31에서 교회와 성령(9.17, 22, 31)이 함께 언급되며 박해 속에서도 주 기독교(9:27, 29, 31)의 복음을 증거하여 성장하는 모습이 반복된다.³²⁾ 특히 이 문맥에서 바울의 회심과 사도적 소명은 모두 교회가 선포해온 주 기독교의 복음과 관련된다. 9장 16절에서 이방인(e;qnh)은 이스라엘과 함께 바울이 주의 이름을 전달하는 사도적 소명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받은 지상사명(1.8)과 그것이 일차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오순절 사건(2.5)을 회고하게 한다. 저자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바울의 사도적 소명을 통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³³⁾

사도행전 6:8-9:31은 백성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6.13; 7.58)로 시작하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도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으로 이어진다(8.25). 후반부 T2.2(행 9:32-12:24)

29) Bolt, "선교와 증거," 233-69.

30) Giles, "Church," 194.

31) Bolt, "선교와 증거," 235-36.

32) Richard N. Longenecker, "The Acts of the Apostles", in Tremper Longman III, David E. Garlan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 Zondervan, 2007), 865.

33) Bock, 『누가신학』, 343, 344.

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심판의 주님을 증언한다(10.39-43; 11.19-21). Bolt는 선교적 증언에서 구약에 근거하여 기독교론과 죄 사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⁴⁾

3. 사도행전 12.25-19.20에 나타난 '성령'(pneu/ma)과 '증인'(ma,rtuj)

사도행전 12.25-16:5은 교회의 구제로 도입되고(12.25), 주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성령의 사역을 새정보로 제시하며 시작한다(13.2). '성령'(pneu/ma)을 언급한 것은 요약절 9.31의 주제어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전개를 보여주는 1.8의 주제어를 회고시킨다. 교회의 이상적 모습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선택, 파송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한다(1.15; 2.4; 11.1; 13.2; 15.40). 성령이 선택해 세운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기독교론적 복음을 증거했다(13.23-37). T3.1.1(12.25-14.20)은 교회(evkklhsi,a)로 시작해서 복음 전파의 결과로 창조된 제자들(maqhtai,, 14.20)로 마치며 그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T1.1(1.1-6.7)이 교회(5.11)를 언급하고 마지막 단락(6.1-7)과 요약절 6.7에 제자들(6.1, 2, 7)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패턴이다.

T3.1(행 12:24-16:5)의 둘째 단락 T3.1.2(14.21-16.5)도 교회(evkklhsi,a)를 언급하며 시작한다(14.23, 27). 여기서도 교회는 복음으로 세운 많은 제자들(maqhtai,, 14.22, 28; 15.10; 16.1)로 표현되는데,³⁵⁾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주제를 도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 조건으로 많은 환난을 제시한다(14:22).

주제어 evkklhsi,a가 T3.2(행 16:6-19:20)에 1회(18.22) 언급되는 것은 본문의 주제뿐만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부각시킨다. 여기서도 그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를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한다(16.6-10). 이와 같이 성령으로 주 기독교론의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사도행전의 첫 단락 T1.1(행 1.1-2.41)에서 반복되던 사도행전의 주제요 기본 패턴임을 확실하게 해준다.

사도행전의 셋째 단원(12.25-19.20)의 전반부 T3.1(행 12.25-16:5)은 사도 바울이 열두 사도들을 부활의 증인들로 제시하고(13.31) 능력을 행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14.3)과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증언을 공인하는 것(15.8)으로 이어진다. Bolt는 선교적 증언에서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보증이 됨과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증언에서 성령의 역할을 잘 지적한다.³⁶⁾ 후반부 T3.2(행 16.6-19:20)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독교론적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기록한다.

4. 사도행전 19:21-28:31에 나타난 '성령'(pneu/ma)과 '증인'(ma,rtuj)

34) Bolt, "선교와 증거," 235.

35)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96.

36) Bolt, "선교와 증거," 235.

사도행전의 마지막 넷째 단원 T4(행 19:21-28:31)은 T4.1(행 19:21-20:38), T4.2(행 21:1-28:31)로 구성되는데,³⁷⁾ 주제어 evkklhsi,a는 모두 T4.1(행 19:21-20:38)에만 집중되어 있다(19.32, 39, 41; 20.17, 28). T4.1(행 19:21-20:38)는 선교 사역을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19.21)과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 구제 사역을 연결하며 시작한다(19.22; 20.24).

특히 T4.1.1(행 19:21-41)이 선교 사역을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19.21)과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 구제 사역으로 시작하였다면(19.22), T4.1.2(행 20:1-21:14)은 주제어 evkklhsi,a를 명시하며 기독교적 복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20.17, 28).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에 의해 세워졌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에 보배롭게 돌보아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을 암시하는 속죄와 새 언약의 피다. 사도 바울은 설립된 교회의 장로들에게 속죄와 새언약의 공동체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면서 1차 주제어 '하나님의 나라'(20:25)와 주 기독교론으로 교회론의 절정을 보여준다(20:19-35).

T4(행 19:21-28:31)의 요약절은 주제어 evkklhsi,a나 '말씀'(lo,goj)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과 그로 인해 설립되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h' basilei,a tou/ qeou/)와 '주 예수 그리스도'(ku,riou vlhsou/j Cristo,)를 명시한다. 특히 20장 21절의 주 기독교론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하는 종말론적 새 이스라엘이 믿어야 할 내용으로서 다시 반복된다.

T4.2(행 21:1-28:31)에도 주제어 evkklhsi,a가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T4.2.1(21.1-23.11)은 예루살렘에서의 변증 설교이 중심이고, T4.2.2(23.12-26.32)는 가이사랴에서의 변증 설교가 중심이다. 이 두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6:8-12:24에 나타난 자신의 회심과 소명을 고백하면서 주 기독교론의 복음을 증거한다(9.5; 26.15).

마지막 단락 T4.2.3(27.1-28.16)에도 주제어 evkklhsi,a가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가 선포해야 할 가르침으로 가득하다(27.9-44; 28.16-31).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28:17-23),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한다(28.24-28). 바로 이 말씀에서 1차 주제어 '하나님의 나라'(28:23, 31)와 주 기독교론(28.31)이 다 포함되어 교회론의 절정을 보여준다(28:31). T4(행 19:21-28:31)은 선교 사역을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19.21)으로 시작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거절하는 부정적 반응도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사야 6장 9절의 성취라는 평가로 마친다(28.25).³⁸⁾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주 기독교론의 복음이 교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모두 성령의 사역 결과임을 가리킨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넷째 단원(행 19:21-28:31)의 전반부 T4.1(행 19:21-20:38)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전망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20.21, 23, 24). 후반부 T4.2(행 21:1-28:31)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과 선교적 소명을 반복하면서(9.1-16; 22.6-21; 26.12-18)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스테반을 선교적 증인

37)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522.

38) Bock, 『누가신학』, 263-64.

으로 평가하고(22.20) 구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적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는 필연성을 강조하며 마친다(23.11; 26.22; 28.23). Bolt는 선교적 증언에서 고난과 부활의 기독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⁹⁾

IV. EKKLHSIA(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evklhsi,a)의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에 관해 연구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도행전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말씀'(lo,goj)의 확산이 사도행전의 큰 요약절을 구성하는 중심 주제로 제시되지만, '교회'(evklhsi,a)도 사도행전의 작은 요약절들(9:31; 16.5)에 언급되면서 사도행전의 중심주제임을 확인했다. 이 두 중심주제는 사도행전의 첫째 단원(1.1-6.7)에서 연결된다. 전반부 사도행전 1.1-2.41의 요약절 2:41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주 기독교의 복음인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표현된다. 후반부 2.42-6.7에서 처음으로 '교회'(evklhsi,a, 5.11)가 언급되는데, 여기서 교회는 구제(diakoni,a)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타나고(2.42; 4.32; 5.12; 6.1, 2, 4; 11.26, 29; 12.25; 19.22; 20.24; 21.19), 그 사랑의 구제는 '믿음'(pi,stij)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된다(2.44; 4.32; 6.7; 16.5).

둘째, '말씀'(lo,goj)의 확산과 '교회'(evklhsi,a),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구제하는 사랑 등 중심 주제들이 나머지 사도행전에서도 반복된다. 이것은 모두 저자가 교회의 정체성을 선교의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증거다.

셋째, 교회는 정체성의 구심점에 기초하여 선교적 사명이란 원심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전개에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실행할 때 '성령'(pneu/ma)과 '증인'(ma,rtuj)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성령과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기독교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특히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주 예수를 통한 죄 용서의 구원을 강조한다. 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과 박해도 불사하는 능력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소논문의 지면상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을 철저하게 밝히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내부적 정체성 확립을 기하고, 그 정체성의 구심점에서 외부를 향한 선교적 원심력이 실행하는데 자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

39) Bolt, "선교와 증거," 235.

참고문헌

- 김광모. (2011). "누가복음서 서문의 구조적 의미론 분석." 성침논단. 제8집.
- 김세윤. (1993). 『예수와 바울』. 서울: 참말.
- 박형대. (2011). "사도행전에 소개된 예루살렘교회의 변화에 대한 소고," 『신학지남』. 77/2.
- 양용의. (2004). 『하나님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 양용의. (2004). 『마태복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 윤철원. (2004). 『(성서 읽기의 새로운 흐름)사도행전의 내러티브 해석』. 서울: 바울.
- 조광호. "이방인 선교의 관점에서 본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 『신약논단』. 20(1).
- Barrett, C. K. (1994).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s. 1-2. ICC; Edinburgh: T. & T. Clark.
- Bauer, F. C. (1831). "Die Christuspartei in der korinthischen Gemeinde, der Gegen-satz des petrinischen und paulinischen Christenthums in der a. altesten Kirche, der Apostel Petrus in Rom." TZTh 5.
- Bird, M. F. (2007). "The Unity of Luke-Acts in Recent Discussion." JSNT. 29/4.
- Bock, D. (2010).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과 성취." in I. H. Marshall. *Witness to the Gospel: the theology of acts*. 『사도행전신학』. 류근상 역. 경기도: 크리스찬 출판사.
- Bruce, F. F. (1990). *The Acts of the Apostl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 Bruce, F. F. (2017). 『사도행전』. 김장복 역. 서울 : 부흥과개혁사.
- Cadbury, H. J. (1958). *The Making of Luke-Acts*. London: S. P. C. K.
- Fitzmyer, J. A. (2015). 『사도행전주해』. 박미영 역. 경북: 분도출판사.
- Giles, K. N. (1997). "Church." in *Dictionary of the later New Testament & its developments*, (edited) Ralph P. Martin, Peter H. David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 Jeremias, Joachim. (1971). *New Testament Theology: The Proclamation of Jesus*. trans. John Bowde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Keener, Craig S. (2012).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V.1. Grand Rapids, M. I. : Baker Academic.
- Longenecker, Richard N. (2007). "The Acts of the Apostles." in Tremper Longman III, David E. Garlan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 Zondervan.
- Marshall, I. H. (1992). *The Acts of the Apostles*. Sheffield, England: JSOT Press.
- Marshall, I. H. (2004). 『복음의 증거 -사도행전 신학』.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 Mattill, Jr., A. J. (1970). "The Purpose of Acts: Schneckenburger Reconsidered." in W.

- W. Gasque · Ralph P. Martin (eds.). *Apostolic History and the Gospel. Biblical and Historical Essays. Presented to F. F. Bruce.*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 O'Neill, J. C. (1970). *The Theology of Acts in its historical setting.* London : S. P. C. K.
- Perrin, Norman. (1974).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Proclamation and Pare-nesis, Myth and Histor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Peterson, David G. (2009). *The Acts of the Apostles: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 Co.
- Schnabel, Eckhard J. (2018).『강해로 푸는 사도행전』. 디모데, 2018.
- Turner, C. H. (1900). ed. by Hastings, *A Dictionary of the Bible v.1.* New York: Scribner's Sons.